

해 내야만 하는 일을 하여야.....



코오롱전자(주) 사장 姜 寬

“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해 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때 부터인지 우리 주변에는 실로 귀찮고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고, 쉽고 눈에 보이는 일만 하며 정해진 일만 하려는 무 무사안일주의적인 풍조가 만연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는 절대로 남보다 앞설 수 없는 법이지요.

”

귀사의 설립동기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 전자산업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을 장래 유망업종으로 전망, 그 사업성을 검토하던 중 그간 국내 독점 공급체제로 인한 PCB 업체의 원판수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균형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참여 권유와 때마침 세계 일류기술 보유사인 미국 GE사와 기술제휴로 코오롱전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당시 김천공단은 막 단지조성을 시작하던 차라 우리가 공사를 하던 시설은, 도로는 물론이고 수도, 전기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지역개발위원과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무사히 준공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7, 8월 우기에는 도입 설비를 운반하던 중장비가 진흙

탕에 빠져 바로 10m전까지 기계를 운반 하고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던 일도 있었으나 그 많은 기계를 한번의 실수나 사고없이 도입하여 무려 3개월이나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성공리에 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장 기술자들이 미국 GU사 기술자들로 부터의 운전기술 습득은 물론 계속적으로 밤을 세워가며 한 가지 기술의 완전 터득을 위해 원인의 원인을 도출하고자 집중적으로 토의를 반복한 결과 기술력의 응용능력이 제고되어 이제는 모든 제조기술이 모두 우리가 개선한 제법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어 이 또한 우리의 자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귀사의 생산제품을 소개해 주시죠?

우리회사의 생산제품은 가전용도 제품인 Paper Phenol 제품과 산업용도인 Glass Epoxy 제품, 다층화 재료인 MLB용 자재를 생산·판매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품질수준에 올릴 수 있기까지에는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음은 물론이지만 특히 국내 전자업체의 경기부진과 아울러 신규업체의 제품 채용을 주저하여 시장진입에 더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국내외로 당사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요, 이는 고도의 품질 경영을 위해 최고의 품질, 최고의 품위를 목표로 하는 생산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저희는 UL, BSI, CSA, 등 세계적인 규격 인증을 모두 획득한 바 있으며 특히 미국 통신교환 전문 Maker인 Northern Telecom사의 Approval 획득은 물론 국내 Big Set Marker들의 사용 승인을 받아 전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박적층판의 제조기술은 어느 수준입니까?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제품 설계에 핵심이 되는 수지 합성기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계 일류의 동박적층판 Maker들이 모두다 종합화학 Maker들이나 것도 수지합성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시장경쟁력이 여기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간 정밀화학 분야에서의 축적된 생산기술로 이미 동종업체에 수지를 생산, 공급한 실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 Know-How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저희 제품의 품질을 안정화 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그룹 기술진과 미 G.H 기술자의 상호연계 연구 System으로 개발한 RESIN은 이제껏 이 업계가 다년간 숙제로 고심하던 휼 문제를 일거에 개선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지 합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기능성 인쇄회로용 원판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이 업계에 기술을 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최고의 품질, 최고품위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QC 등을 통한 공정관리와 생산관리를 고도화하여 수입검사 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 철저히 관리 하여야만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에 가면 곳곳에 이를 독려하는 구호가 수 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많은 구호문이 전쟁터에 출병하기 전의 분위기를 연상케 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개개인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 정도는 꿩잡아 하는 자칫 나태해 지기 쉬운 자세를 바로 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가 늘 일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회사의 제품은 항상 균일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는 제조공정이 이를 반영하며 이는 세계일류제품 물성 분석연구소의 검사과정에서 이미 입증 되기도 했습니다.

귀사의 연구개발력은 어떻습니까?

코오롱중앙연구소와 구미소재 코오롱 고분자 연구소와의 연계로 추진되는 차세대 첨단 전자재료의 연구개발은 기초물질 연구개발에서부터 전자재료로의 응용개발 연구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기본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팔독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귀사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우리 회사는 '90년 초에 공장을 준공하여 가장 빠른 시간내에 품질을 안정시켜 국내 시장에 침투, KOLON Brand의 Image를 부각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현재 국내의 제조기술은 한시라도 빨리 고가품 위주 제품으로 전환하여야만 하는 대 명제가 우리앞에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의 시장경쟁 우위의 관건은 기술력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는 그간 다져온 정밀화학 기술력과 연구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 전자산업 중 가장 취약 부문인 전자재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1995년까지 종합 전자재료 Mak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경제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시설확장은 물론이고 High End CCLS 사업의 전개를 위해 Kolon Group Global R&D Network을 이용, 연구개발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2,000년에는 첨단전자 복합재료사업을 전개하여 매출 2,000억원을 실현하는 명실 상부한 첨단전자재료 산업군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첫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때 부터인지 우리 주변에는 실로 귀찮고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고 쉽고 눈에 보이는 일만 하며, 정해진 일만 하려는 무사안일주의적인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선 절대로 남보다 앞설 수 없는 법이지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아쉽습니다.

나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령 실수를 하였거나 행여 일이 꼬여 그 결과가 예상을 빗나갔어도 절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되는 대로 하고 혹은 흘러가는 대로 하여 해 보니 그렇다 라는 사고의 소유자에게는 비판을 가차없이 가합니다.

둘째는, 부분의 합이 절대로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전체를 커다랗게 조명하고 그것을 다시 몇개의 부분으로 쪼개고 다시 쪼개진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의 일을 완벽히 해 내고도 자칫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빠뜨려 낭패에 직면하는 일을 종종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의 설계단계에서는 시야를 넓게 보는 자세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건의 현장에 있으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직접체험하지 않고서는 일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법인데 근래의 관리자들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쉽게 늙어 버린 느낌이 듭니다. 보고 받기를 좋아하고, 확인 하기를 주저합니다.

산 지식, 몸에 배인 체험만이 기술인, 산업인이 되는 첩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